

## 제4강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생명으로 윤리

### 5. 전인치유(holistic healing)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전인교육, 전인치료, 전인의학, 전인치유, 전인목회학, 전인치유사역, 전인적 돌봄 등의 '전인'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인간을 전인(全人)이라 함은 단조로운 단일체가 아니라 정밀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고상한 복합체임을 암시한다. 우선 인간(person, 人間)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전인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첫째, 인간은 물체이다.** 즉, 물질적 존재이다. 물질은 원자와 분자가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법칙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된다.

**둘째, 인간은 생물체(生物體)이다.** 즉 생명을 가진 유기체이다. 생물체는 각기 독자적 성질을 가지고 유기적이며 자발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인간은 의식을 가진 생물체이다.** 즉 정신-육체(心身, psycho-somatic)적 존재이다. 인간은 의계에 대하여 사고하므로 자주 독립하여 육체를 명하여 활동할 수 있다.

**넷째,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다.** 즉,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을 성숙시켜 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서 발전하고 개발해 가는 인격체이다.

**다섯째,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너와 더불어 공동사회를 형성하며 문화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이다. 그 기본단위는 가정이요, 친족이요, 사회요, 국가와 민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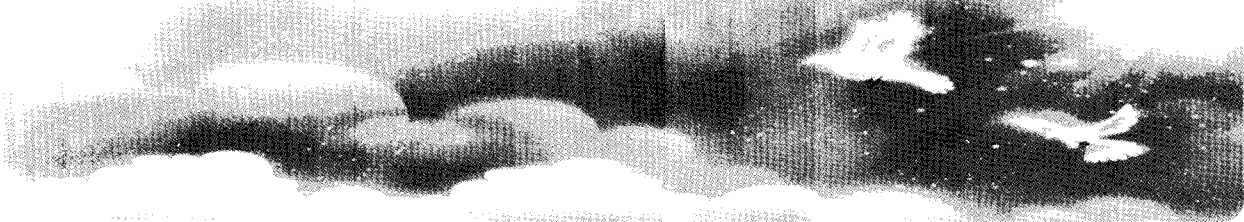
**여섯째, 인간은 각각적 존재이며 윤리적 존재이다.**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스스로 느끼며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행동하는 윤리적 존재이다.

**일곱째,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즉 종교적 존재이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자 앞에서 변민하고 죄를 의식하고 초자연적 힘을 의지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 존재이다.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한없이 강조하지만 만약 인간의 영적 존재를 부인한다면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로부터 정신적 그리고 영적 실존을 포함한 다양하고 고상한 성품을 가진 복합체이다. 그러므로 존엄성을 가진 인간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는 견해를 우리는 전인적(wholistic view)이라 하고 그 실존을 전인(whole man, total person)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최근에 의료계에서는 전인치유란 용어를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영어로는 holistic medicine이란 말로 표현한다. Holistic이란 단어는 철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체론(holism)에서 따온 말이다. 복잡한 체계를 가진 전체는, 단순히 각 부분을 모아 놓은 총합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기능적인 통일체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은 창조주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연합하여 우주적인 통일체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을 holistic, 즉 전체적 혹은 통전적(統全的)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인간의 치유와 건강도 창조자 안에서 연합되고 통일되어 기능하는 우주 전체의 일부분으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접근하는 치유를 말한다. 따라서 전인치료는 total medicine이란 말보다 holistic medicine이란 용어



가 더 포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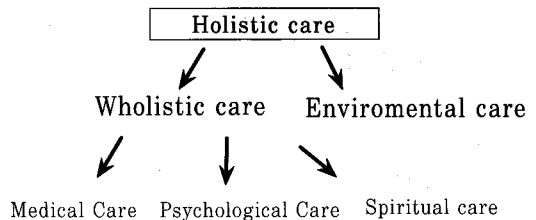
우리말의 전인(全人)이라 함은 인간 전체를 뜻하나 영어의 홀리즘(holism)은 인간 전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주 안에서의 인간 전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면 창조자의 창조물 안에서의 부분적 존재를 말한다. 그러므로 holistic care를 단순히 우리말로 전인적 돌봄이라 번역하는 것은 대단히 혼란스럽다. Holistic care는 wholistic care 혹은 total care(전인적 돌봄)와 전환경적 돌봄(enviromental care)을 포함한 전우주적 돌봄이란 뜻이다.

Holistic은 근원적으로 거룩하다는 말의 거룩(holy)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지칭하는 단어이다.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 중의 하나는 '나(하나님)는 거룩한 자다, 그(하나님)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하나님은 '거룩'이란 대명사로 표현된다.

거룩이란 말은 전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全知, omniscience), 전능(全能, omnipotent), 무소부재(無所不在, omnipresent)란 말로 표현한다. 곧, 하나님은 전체란 뜻이다. 따라서 holism은 궁극적으로 창조자인 하나님께 귀착된다. 이처럼 근원적 차원에서 인간을 존엄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다루고자 하는 분야를 전인의학 혹은 전인의료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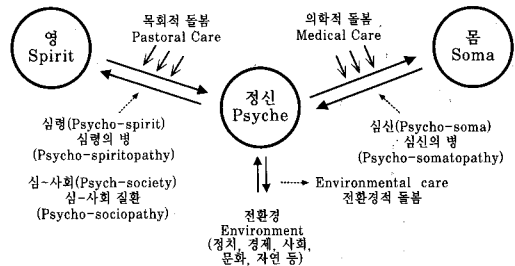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통전적 돌봄(統全的, holistic care)이란 전인적 돌봄(全人的, wholistic care)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을 포함한 환경적 돌봄(enviromental care)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전인적 돌봄은 의료적 돌봄(medical care)과 정신적 돌봄(psychological care)과 영적 돌봄(spiritual care)으로 세분할

수 있다(그림 4-1. 통전적 돌봄, holistic care)



<그림 4-1> 통전적 돌봄(holistic care)

이들에 관한 사역(使役, ministry)의 체계는 정신과 육체를 연관 지어 돌보는 의료적 돌봄(medical care)과 정신과 영을 연관 지어 돌보는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과 정신과 전환경을 관련시켜 돌보는 전환경적 돌봄(enviromental)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의료적 돌봄은 의사를 주축으로 한 의료진이 담당하고 목회적 돌봄은 주로 성직자가 뒷받침하고 환경적 돌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환경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주만물의 자연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림 4-2. 통전적 치유사역, holistic healing min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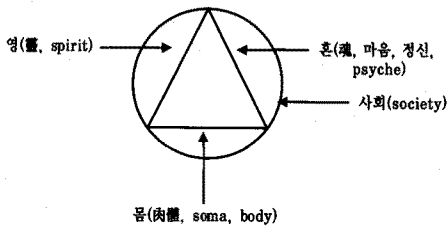


<그림 4-2> 통전적 치유사역(holistic healing ministry)

# 제4강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생명의료 윤리

이상에서 언급한 전인지유를 논함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인적 인간은 육체(몸)와 정신(혼, 마음)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3원론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전인(全人)이란 다차원적인 창조물로서 가시적 그리고 비가시적인 모든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인간모습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전인적 건강이란 몸과 정신과 영으로 구성된 전인(whole man), 즉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실존 전체를 포함한다.



〈그림 4-3〉 전인의 구조

## 1) 몸(肉體, soma, body)

몸은 헬라어로 soma라 부르고 이 헬라어 낱말을 의학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육체의 병을 영어로는 somatic disease라 한다. 그리고 균형 잡힌 발달된 육체를 우리는 체격(體格)이라 부른다. 육체가 활동하기에 적합한 인간의 기본 골격은 206개의 뼈가 근육으로 연결되어 기능하고 있다. 인간의 육체는 물질적이어서 동물의 몸과 거의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간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발달된 근대의학은 아직도 육체적 질병만을 주로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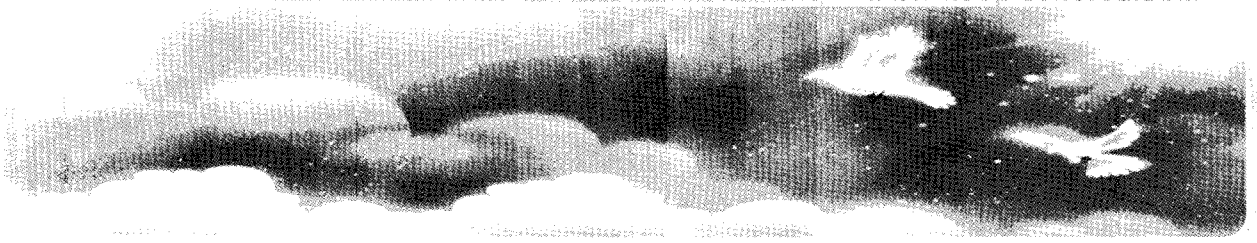
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물질계에 속하나 기능성을 가진 육체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는 동물적 기능을 가지나 몸과 혼과 영이 결합된 전인에 예속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결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통합된 인간 전체로 보아야 한다. 인간의 몸을 동물적 입장에서 볼 때는 저속하고 죄악시되나 전인적 입장에서 볼 때는 존엄하고, 경이롭고, 고귀한 양면성을 가진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인간도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리될 수 없는 통합된 삼위일체(三位一體)로서의 하나이다. 즉 인간은 통합된 전인(全人)이다. 신학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때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분설과 인간은 몸(body)과 혼(soul)과 영(spirit)으로 구별되는 세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삼분설의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간의 몸은 많은 원자와 분자의 유기적 결합으로 구성된 가시적 물질이 연합하여 그 형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물질로 된 형체는 생명체로서 특수한 기능을 발휘한다. 그 기능에 따라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신경계 등의 중요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총체적인 몸의 기능을 유지한다. 몸은 물질계에 속하나 기능적 물질이며 기능하는 몸(functioning body)이다. 인간은 육체만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통합된 인간 전체로 보아야 한다.

기능하는 가시적 몸(soma)은 비가시적인, 더 중요한 영역과 함께 기능하므로 결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인의 한 영역인 것이다. Soma, 즉 몸의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돌보는 분야를 지금까지 근대의학이 담당해온 것



이다. 이 몸, 즉 soma에 이상이 있을 때 의학적으로는 육체적 질병(somatic disease)이라 부른다.

### 2) 혼(魂, soul)

혼은 헬리어로 푸슈케(psyche)라 하고 영어로는 soul로 표현한다. 혼은 욕망, 느낌, 열정, 정서 등이 존재하는 자리로 인간의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곳이다. 즉, 혼은 지, 정, 의를 조정하는 영역이며 사람의 사고와 정신영역을 다루는 인격을 성숙시키는 실체이다. 희랍어 psycho에서 유래된 정신(psyche)은 육체적인 삶인 동시에 혼이기도 하다. 따라서 혼(soul)과 마음(mind)과 심정(heart)과 정신(psyche)등의 용어는 서로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혼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재(內在)의 영을 따르기도 하고 그것에 거역해서 살수도 있는 자아의식의 주체인 것 같다. 혼은 이처럼 의지의 기능과 이해하는 지성의 기능이 있고 감정의 기능이 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혼이 몸(soma)의 말을 들으면 육(flesh)이 되고 이를 육체(肉體, physical body)라 부를 수 있고, 영의 말을 들으면 영의 사람인 영체(靈體, spiritual body)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혼의 활동에 따라 영의 사람도 될 수 있고 육의 사람도 될 수 있다.

### 3) 영(靈, spirit)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영적 존재(spiritual being)로 창조되었다.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영적 성품에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성품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기 힘들다. 영적 존재라 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이 영적 성품은 신(神)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

화를 할 수 있는 성품이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종교성을 가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영(靈, spirit)은 헬리어 pneuma로 표현하는데 공기라는 뜻이다. 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pneuma는 모두 공기와 연관되는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영과 혼의 분리라 정의하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나 영은 불멸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언급한 삼분설 즉, 몸과 혼과 영이 연합하여 형성된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므로 사람을 대할 때는 존엄성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몸으로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혼으로 인격을 형성해가며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구해온 전통적인 서양의학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에 봉착하자 그 한계점을 느끼고 동양적 사고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현재 사고로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할지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 즉 민간요법, 동양의학, 음악, 종교 등 모든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전통의학에 반한 대체의학(代替醫學,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불렀다. 그 이후 용어의 명칭에 모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상보의학(相補 혹은 補完醫學, complimentary medicine)이라 명명하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전인의학(holistic medicine)이란 전통적 서양의학에 대체의학을 포함하여 부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 원고는 자원봉사자 교육교재인 호스피스총론 개정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